우도 해중 전망대 조성 '숨고르기'

제주도 경관위원회 지난 23일 심의서 결론 유보
"의견 수렴 더 필요" 결정… 사업계획 공개 안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서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관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열린 심의에서도 현장조사 후 심의하기로 하고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을 의결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심의 안건인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제주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수립한 '우도면 종합발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150억원을 투입해 우도면 오봉리 공유수면 2000㎡에 해중전망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방향은 수중 전망대 내부에 방송국을 설치해 해녀의 물질과 산호초 등 우도 바닷속 풍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전망대는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도의 문화와 정체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7월 열린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소의 제주 추자·성산일출·우도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2차) 중간보고회에서 해중전망대 설치 예정지 인근 생물종 현황 조사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

연구소가 이 지역의 생물종을 조사한 결과 총 3목 10과 21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해조류가 풍부해 해양어류들의 서식지로 적합하다"며 "볼락 유어가 확인됐으며 볼락 등의 산란처로 적합하다. 단, 조사지 내 국내해양어류 국가보호종 출현은 없다"고 결론 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깨끗한 서귀포 만들자" 시민이 함께 이룬 성과

시민실천운동본부 토론회서 민관협업분야 성과 등 발표

지난 23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귀포시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본부의 시책 제안 및 아이디어 발굴 전체 토론회.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본부(본부장 강상종)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를 위한 시책 제안 및 아이디어 발굴 전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분야에서 이룬 성과와 민관협업 분야에서 이룬 성과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성과를 살펴보면 행정분야에서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관 협업(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MOU 체결) 강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확대(24개소) 및 시민편의 특수시책(6가지) 추진 ▷폐지류(6139t) 및 유리병류(1035t) 등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확대 등이 있었다.

민관협업 분야에선 ▷1회용품 구입처 반송 외국어 홍보스티커 제작 ▷가정용 음식물탈수기 사용 활성화 ▷방송 외국어 홍보스티커 제작 ▷가정용 음식물탈수기 보급 ▷재활용품 직접 처리를 위한 재활용협회와 서귀포시 간 협조 체제 강화 등이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은 서귀포시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운동본부 위원 전원에게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수여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산악인 발자취 기획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10월 24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에서 제주산악등반 발자취 '2006년 에베레스트'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회에는 제주산악연맹 최초로 이뤄진 2006년 에베레스트 원정을 주제로 제주산악인들의 원정 등반 활동사항이 전시되고 있다. 원정대는 장덕상 대장을 중심으로 5명 대원이 참여했으며, 등반 당시 활동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됐다.

제주도 2020년 한라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에 사료수집의 역할로 전시회가 끝난 뒤 기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영화로 만나는 '이타미 준'

서귀포시는 오는 30일 시청 1청사 별관 2층에서 세계적인 건축가인 재일 한국인 '이타미 준(본명 유동룡)'의 인생과 작품세계를 담은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상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특별기획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 상영은 도내 아름다운 명소들을 건축한 재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과 그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는 제20회 전주 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 수상작이며 세계적인 건축 거장의 삶과 작품철학을 엿볼 수 있는 수작이다. 이태윤기자

제주시 탐라도서관 유리벽에 설치된 '그린커튼'. 사진=제주시 제공

"그린커튼으로 생활 속 에너지 아껴요"

제주시, 내년 공공시설 확대
녹색식물 활용 태양광 차단
녹색 조명으로 힐링 효과도

제주시는 자연을 활용해 생활 속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도시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커튼사업'을 지난 6월 탐라도서관에 설치했다.

그린커튼(Green Curtain)이란 건물 창가에 덩굴성 녹색식물을 식재해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는 것으로 녹색커튼이라고도 부른다. 그린커튼의 효과는 여름철 태양광과 복사열을 차단해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고, 식물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 냉각효과를 거둘 수 있어 에너지를 절감한다. 도로변 먼지·소음 감소와 미세먼지 흡착, 유리건물의 외부 시선 차단 등 환경개선 효과를 비롯해 산소 발생과 녹색 조명 효과 등으로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기도 한다.

제주시는 탐라도서관 유리벽 전면과 후면에 그린커튼을 설치했으며, 식재된 덩굴식물은 나팔꽃, 조롱박, 수세미, 여주 등이다. 그린 커튼은 10월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연출, 시민의 심신 안정과 힐링을 위해 그린커튼 사업을 내년에는 공공시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추사 예술세계, 글로벌 콘텐츠로"

제주-예산-과천 업무협약
김정희와 인연 계기 맞손

추사 김정희 선생이 추사체를 완성했던 유배지 제주도, 추사의 고향 충남 예산군, 생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는 경기도 과천시가 추사의 예술세계를 글로벌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1일 예술의전당 무궁화홀에서 예술의전당(사장 유인택)과 과천시(시장 김종천), 예산군(군수 황선봉)과 함께 추사 김정희 글로벌 콘텐츠 개발을 위한 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재조명이 국내·외 문예부흥의 관건이라는데 뜻을 같이하며, 그의 학문과 예술 관련 글로벌 콘텐츠 개발을 도모하기로 협약했다.

구체적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학문과 예술세계를 기리고, 연구·교육·전시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과천시 추사박물관, 예산군 추사고택, 제주추사관을 기점으로 한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사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도민 대변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개정안 발의에 향후 국회 논의 주목
강창일 의원, 오늘 발의 예정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2022년 지방선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정부 입법에 나섰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국회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 의원은 25일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 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됐다"며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 규정으로서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내용은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도의회 안을 수정 보완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행안부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수용' 입장을 지원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미현기자

개교 96주년 기념
제4회 김녕초등학교
총동문의 날

우리 동문회에서는 『개교 96주년 기념 제4회 김녕초등학교 총동문의 날』를 동문 간의 화합과 모교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석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이지만 동문 선후배님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 행사명 : 개교 96주년 기념 제4회 김녕초등학교 총동문의 날
■ 일 시 : 2019년 9월 1일(일요일) 10:00 ~ 16:00
■ 장 소 : 김녕초등학교 운동장 (우천시 구좌체육관)
■ 연락처 : 총동문회장 김광배(010-4693-9932)

김녕초등학교 총동문회

더 늦기 전에 도전하세요!
학 생 모 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서귀포오석학교에서는 2019/20 학년도 학사 일정 시작에 맞춰 다음과 같이 각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 음-

○ 모집과정 및 인원

과정	문해교육과정(초등문해, 중등문해)								검정고시교육과정	
	초등문해1	초등문해2	초등문해3	한글기초	초등문해1	초등문해1	초등문해1	중학문해	중졸과정	고등과정
모집인원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10명	20명	20명
수업시간	10:00~12:00			19:00~20:30	19:00~21:00				19:00~21:55	

○ 모집대상
성인,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학교 밖 청소년 등

○ 모집기간 : 8월 31일까지

○ 개 강 일 : 9월 2일(월)

○ 수업시간
- 오전 문해교육과정 : 오전 10:00~11:50(주 3회, 월·수·금)
- 오후 문해교육과정 : 오후 19:00~20:50까지
- 중졸·고졸 검정과정 : 오후 19:00~21:55까지

○ 수 업 료 : 전액 무료

○ 문 의
☎ 762-2487 (오전 10이후 통화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 43-2(서귀동, 서귀포소방서 부근)

어린 시절 배워야 하는 시기에 가정형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쳐 정규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학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한글기초교육에서부터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전해 보십시오!

개교52주년 서귀포오석학교 SEOGWIPO OSUK SCHOOL http://www.osuk.co.kr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서귀포오석학교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귀포시 -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